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노아가 방주에서 나옴

[창세기 8:1-5]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들과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과 새들을 권념하셔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어 물을 감하게 하셨다. ‘권념(眷念)하다’는 원어(지카르 **קָרַן**)는 ‘기억하다, 생각하다’는 뜻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신 32:10)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사 49:16)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시 121:8)고 표현하였다.

땅의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을 여신 이는 하나님이지요 단으신 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연만물과 그 현상들을 홀로 주관하신다. 비가 오는 것도 가뭄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연법칙을 사용하시고 특별한 경우에만 기적을 일으키신다. 노아 시대의 홍수도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그 홍수의 제거도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150일 동안 세상에 가득했던 물이 서서히 줄어들게 하셨다. 건전한 믿음은 기적주의가 아니고 자연법칙이나 이성적 사고를 존중한다.

7월 17일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했으니 약 5개월이 지난 때이었다. 아라랏산은 오늘날 터어키의 동쪽 국경 부근, 아르메니아와 이란과 접한 곳에 있는 높이 5,166m 되는 산이다.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주위에 아라랏산보다 높은 산도 있고 또 멀리 동쪽 네 팔 부근에는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산들이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라랏산을 택하셨다. 그 지역은 홍수 후의 세계를 위해 선택된 곳이었다. 노아의 자손들은 거기에서부터 퍼져나갈 것이다. 물은 점점 줄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지 70여일이 지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다.

[6-12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그 후 또 40일이 지난 11월 10일경,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았고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 노아는 또 비둘기를 내어놓았는데, 비둘기는 밭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았을 때 그 비둘기는 감람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왔다. 노아는 그것을 보고 땅에 물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다. 또 7일 후 비둘기를 다시 내어놓았는데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땅이 말랐고 비둘기가 거할 곳을 찾았다는 증거이었다.

[13-19절]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노아의 나이 601년 1월 1일, 땅 위에 물이 건졌다.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거하고 내려다보았고 땅에 물이 건졌음을 확인했으나 땅이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다. 또 두 달이 흘러 2월 27일에야 땅이 완전히 말랐다. 홍수가 시작된 지 1년 10일이 지난 때이었다. 그 기간은 온 세상에 대변혁이 일어난 시간이었다. 그 기간은 노아의 식구들에게 갑갑하고 지루한 시간이었으나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올린 시간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에게 그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도 다 이끌어내라고 하셨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에 물이 말랐으니, 그들은 지루했던 1년 10일 간의 방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방주에서 나와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있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들어가는 것도 나오는 것도 노아가 마음대로 정하고 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할 일이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서 나왔고 땅 위의 모든 생물들도 다 방주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한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한다. 그러한 생활 원리를 잘 보여준

것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야 했던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다.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하루만 머물 때에도 그들은 순종해야 했고, 한 달이나 일년을 머물 때에도 순종해야 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명령과 신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을 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하기도 하였다(민 9:15-23). 이와 같이 주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그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서기도 해야 한다.

[20-22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 . .

방주에서 나온 후, 노아는 첫째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들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것은 그의 자발적인 행위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양의 첫새끼로 제사를 드렸던 의인 아벨의 발자취를 좇는 일이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다. 번제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대속(代贖)하실 중보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뜻이 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홍수로 멸망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공휟과, 짐승 제물로 예표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구원을 받았다. 죄인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공휟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으로 말미암는다.

번제는 또한 하나님께 대한 노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구원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각오를 표현했다. 홍수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았던 노아이지만,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 그의 심정은 하나님을 향해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이것이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번제의 단을 쌓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해야 한다(롬 12:1-2; 고전 6:19-20; 고후 5:15).

하나님께서서는 노아가 드린 제물들의 향기를 받으셨다. ‘그 향기’라는 원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

리는’ 속죄(더 정확히 말하면, 유희[宥和]의 향기)’(BDB, KB, NASB)라는 뜻이다(레 1:9 등).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가 땅을 저주하였지만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성경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 경고대로 마지막 심판의 날과 그 심판이 올 것이지만, 다시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본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자연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비가 오게 하시는 이도, 홍수가 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비를 그치게 하시는 이도, 바람이 불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자연은택 속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낙심치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를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또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기도 하였고 1년 10일간 방주 속에 머물기도 하였고 또 방주에서 나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 즉 성경에 교훈된 대로 행해야 한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해야 한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그의 교훈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행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바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다. 원죄의 부패성은 어릴 때부터 나타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심령이다(렘 17:9). 사람은 심히 악한 존재이다.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했고 우리의 모친이 죄 중에 우리를 잉태했다(시 51:5). 그러므로 사람은 거듭나야 하며 어릴 때부터 성경의 바른 교훈 속에서 양육되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옥 갈 죄인들인 우리를 그의 공휟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뜻과 명령과 교훈을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롬 12:1-2).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행하자.

주일오후설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라**

[레위기 19:29]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이것은 가정에서의 성결을 명하신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의 순결성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 준수는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야 한다. 또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엄하게 교훈하고 지도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들을 엄하게 징벌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교훈하였다(고전 6:18-2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성을 염려하신 것은 신약교회의 도덕성을 염려하신 것이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교회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와 성도들의 삶에는 음란 풍조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또 나아가서, 성도들은 이 세상과 세속 사회에 선한 본이 되어야 한다. 주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14).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면, 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30절] 내 안식일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 . .

하나님께서서는 또 “내 안식일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들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들을 구별하여 휴식과 공예배의 날로 지키게 하셨다. 안식일들은 온종일 또 온 식구가 잘 지켜야 했다. 특히 주간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 날을 범하는 자에게 죽음이 경고되었다. 출애굽기 31:14-15, “너희는 안식

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聖日)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옛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또 “내 성소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성막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장소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소를 공경해야 했다. 성막은 후에 성전이 되었고 오늘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가 모이는 장소인 예배당도 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신약 성도는 교회에 힘써 모여야 한다. 히브리서 10:25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한다. 또 성도는 교회를 욕하거나 어지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3:16-17,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 . .

이것은 거짓된 신비주의를 금하신 말씀이다. 26절에서도,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리라”고 하셨다(마 7:15-16, 22-23).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한다.

[32절] 너는 센머리(흰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교훈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교훈과 함께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노인 공경의 교훈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희어진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은 제5계명, 즉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내포된 바이다. 우리는 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나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공경해야 한다. 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यो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는 말씀대로(잠 20:29), 노인들은 흰머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생의 아름다움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하고, 또 젊은이들은 머리가 희어진 노인들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잠언 15:20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기느니라”고 말했고, 잠언 30:17은, “아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했다. 또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한다(엡 6:1-4). 우리는 성경의 교훈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우리 자녀들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게 양육해야 한다.

[33-34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 . .

하나님께서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학대하지 말고 동족같이 사랑하고 배려하라고 명령하셨다. 신약성경도 우리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한다. 주께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그네된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이 주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35-36, 40). 또 감독의 자격 요건들 중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다(딤후 3:2; 딤후 1:8). 히브리서 13:1-2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찾아온 새 얼굴들부터 따뜻하게 영접하자.

[35-36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이것은 재판을 할 때나, 장사를 할 때나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할 것을 명하신 것이다. 우리는 더러운 이, 즉 불의하고 부정당한 이익을 구하지 말아

야 한다. 사업하는 자와 장사하는 자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야 자신에게 복이 된다. 잠언 16:8은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은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들 중의 하나로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는 것’을 꼽았다(딤후 3:2; 딤후 1:8).

[37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성경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義)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딤후 3:16). 데살로니가후서 2:15,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귀히 여기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다. 우리는 주일에 온 식구가 교회에 나와 그 날을 온종일 거룩히 지키도록 노력하고 또 교회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자.

둘째로, 우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않으며 그들을 따르지 말자.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 안에 유행하는 거짓된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조심하고 배격하고 오직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들을 공경하자.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고 보답하고 순종해야 하고, 또 교회와 사회에서는 나이든 이들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넷째로,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배우자들을 학대하지 말고 또 신입교인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자. 우리는 그런 자들을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하며, 또 교회의 신입교인들을 사랑으로 영접해야 한다.

다섯째로, 우리는 음란한 행위와 풍조를 조심하자.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거룩을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을 음란한 세상과 구별되게 단정하고 순결하게 키워야 하며, 우리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야 한다.

여섯째로, 우리는 재판이나 상거래에서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자. 우리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고, 상업 활동에서 결코 불의하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일곱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교훈을 행하자. 신구약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법칙이며, 거기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교훈을 순종해야 한다.